

기술 강국을 주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8월 10일(화) 석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1매

* 통신·방송·인터넷은 8월 10일(화) 06:00부터 보도 가능

보 도 자 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회적가치혁신실 김홍찬 실장(044-390-0340), 김아람 주임(044-390-0344)

• 배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044-390-0230), 정민규 책임(044-390-0231)

TIPA,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기부

-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 겪는 대전지역 30개 가정에 서큐레이터 전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TIPA)은 지난 8월 6일(금) 대전 유성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최근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복지기관의 지원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전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TIPA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교류해왔던 동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에너지 취약계층 30개 가정에 서큐레이터와 오는 10일 말복을 맞아 즉석조리가 가능한 삼계탕을 전달했다.

대전 유성구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기관을 폐쇄하였다가 제한적으로 개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폐쇄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작년 인견이불에 이어 올해의 지원물품 역시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한편, TIPA는 매년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하절기·동절기 냉방용품 전달과 연탄 배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 다중집합시설 방역물품 전달, 피해지역 구호물자 지원 등 지역 사회의 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TIPA 이재홍 원장은 이번 활동을 추진하며, “지난 5월 세종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9년여의 시간을 대전에서 보냈다” 며, “기관 이전 이후에도 세종시는 물론 대전시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더 큰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사진 설명 : TIPA가 유성구노인복지관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있다.]